

30대 산모 줄고 40대 '늦맘' 늘었다

30대 초반 출산 10년 새 광주·전남 5900명 ↓ ... 40대는 221명 증가 고용 불안에 결혼·출산 포기 'N포 세대' 증가...광주 첫 데드크로스 부모 도움 받는 3040 '캥거루족' 65만명 ... 30대 10명 중 4명 미혼자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30대 초반에 출산한 임아가 5900명 줄어들며 '반토막' 난 반면, 40세 이상 출산은 22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지역 혼인 건수는 6000건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인구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호남 출생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母) 연령이 30대 초반(30~34세)인 출생아는 광주 3038명·전남 3974명 등 7012명으로, 지난 2010년 1만2912명에 비해 5900명(-45.7%) 감소했다.

광주 30대 초반 임가는 2010년 6263명에서 10년 뒤 3038명으로, 3225명(-51.5%) 줄었다. 전남은 6679명에서 3974명으로, 2675명(-4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40대 임가는 595명에서 817명으

로, 222명(37.3%) 증가했다. 지난해 40대 출산은 광주 391명·전남 426명 등 817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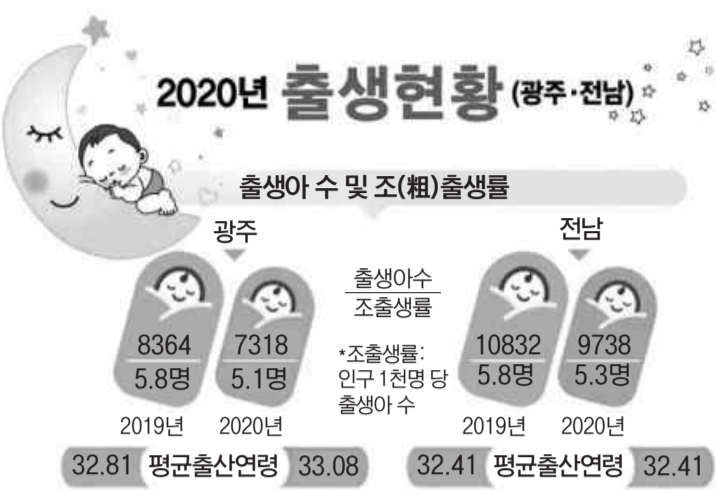
임가의 평균 출산 연령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광주는 31.06세에서 33.08로 늘어나며, 지난해 처음 평균 연령 33세를 넘겼다. 전남은 30.48세에서 32.41세로 증가했다.

35세 고령 산모 비중은 광주 34.5%와 전남 29.7%로, 전년보다 각각 1.8%포인트 늘고 0.1%포인트 줄었다.

불안한 고용과 양극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남은 앞서 2013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을 유지해왔다.

광주 출생아 수는 지난 2012년(1만4392명)부터 8년 연속 감소 추세로, 지난해는 7318명으로 내려앉았다.

지역 출생은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결혼 감소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지역 혼인 건수는 광주 2487건·전남 3359건 등 5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06건) 보다 560건(-8.7%) 감소했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 상반기(9760건)에 비해서는 3914건(-40.1%)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기준 혼인 건수가 6000건 선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 상반기 이혼 건수는 3091건(광주 1263건·전남 182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135건)보다

44건(-1.4%) 감소했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지난 1990년 6.8%에서 2000년 13.4%, 2010년 29.2%, 2020년 42.5%(11월1일 기준) 등으로 지속해서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30대 인구 10명 중 4명은 미혼자였던 셈이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783만3000명(42.9%)은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 원

천을 마련했다.

이외 배우자의 일·직업으로 생활한 사람이 419만9000명(10.1%),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캥거루족'이 313만9000명(7.5%), 금융자산으로 생활한 사람이 196만명(4.7%), 국가·지자체 보조로 생활한 사람이 150만9000명(3.6%) 등 순이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도 62만9000명(1.5%)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등 나주 공공기관 3곳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지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3곳이 협력해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을 지원한다.

한국전력은 27일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전KDN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에 연중 24시간 보안관리, 공격탐지, 보안컨설팅 등 보안 관련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버 공격(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3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예산·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산업재산권 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한전은 전력사이버안전센터 보안 장비를 지원하고, 인터넷진흥원·한전KDN은 컴퓨터 점검과 소프트웨어 원격 보안지원, 공격탐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력 분야 협력 중소기업 중 50인 미만의 사업자이다. 한전과 협력 연구개발(R&D) 및 기자재 납품 실적 등이 있는 200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energytechmarket.or.kr)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코로나 장기화에도 광주·전남 6개 산단 고용 1129명 증가

입주업체는 2298개사로 38곳 ↓

제조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올해 들어 광주·전남 6개 국가산단 고용이 1129명 증가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6개 국가산단의 올 5월 기준 고용인원은 6만3433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129명(1.8%) 증가했다.

6개 산단 고용인원은 2017년 5만6319명, 2018년 5만8449명, 2019년 5만9397명, 2020년 6만2304명, 올 5월 6만343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산단별로 살펴보면 전국 37개 국가산단 가운데 14개 산단 고용이 전년 말보다 줄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대불산단 고용이 6352명에서 6268명으로, 84명(-1.3%) 감소했다.

광주첨단산단 고용은 886명 증가(1만7569명→1만8455명)했다. 이외 여수산단 186명(2만4390

명→2만4576명), 광양산단 82명(1만3913명→1만3995명), 빛그린산단 59명(80명→139명) 등 증가를 나타냈다.

고용인원은 늘었지만 이들 6개 산단 입주업체는 지난해 말 2336개사에서 올해 2298개사로, 38개사(-1.6%) 줄었다.

입주업체는 광주첨단산단에서 전년보다 54개 줄고, 대불산단 1곳, 여수산단에서도 3곳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온라인 기업지원 데이터 플랫폼 운영

방문없이 클릭만으로 지원사업 검색부터 사업 신청까지 가능

(재)전남테크노파크가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전남 지역기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기업지원시스템', 즉 데이터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끝내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의 지원으로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지원사업 ▲전남도 기업 지원 기관 및 지역경제통계 ▲보유 연구장비 ▲지역 내 공지사향 등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전략

을 마련하고, 현재 기관·기업 회원 211건, 지원사업 공고 41건, 사업·과제관리 55건을 플랫폼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향후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 운영을 끝내고 2022년부터 전남도 기업 지원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비즈니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지역기업들의 사업수행으로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코스피	3133.64 (+8.40)
▲ 코스닥	1034.82 (-2.21)
▲ 금리(국고채 3년)	1.566 (-0.009)
▲ 환율(USD)	1176.80 (+0.30)



버튼만 누르면 맛있는 요리가 '똑딱'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9층 '테팔' 매장에서 식재료를 넣기만 하면 찜, 국물, 탕 등 100여 가지 요리를 자동 완성하는 '콕포미'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전기밥솥처럼 보온 기능도 지니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